

느티나무

2016학년도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 기념 인터뷰



이 강 재

(중어중문학과 교수)

이번 호 느티나무에서는 2016학년도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한 이강재 교수와의 기념 인터뷰를 마련했다. 이 교수는 중국어학(경학) 전공으로 고대 중국어 어휘의 역사적 변천 및 고대 유가 경전의 해석과 번역 양상을 연구하고 있다. 본교 중어중문학과에서 「논어(論語) 상십편(上十編)의 해석에 대한 연구」(1998)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 이듬해 본교 교수로 부임해 인문대학 기획부학장, 최고지도자 인문학과과정(AFP) 부주임교수,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언어예술과 중국인의 사유방식』(2002), 『논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조화』(2006), 『고려본 논어집해의 재구성』(2010), 『여섯 가지 주제로 들여다보는 논어』(2013) 등이 있다. 해당 인터뷰의 전문은 인문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 2016학년도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께서 'SNU in Beijing' 등 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하시어 현재까지 많은 학생들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중국 현지를 생생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상 수상을 축하해주는 점 감사합니다. 서울대, 특히 인문대학의 많은 교수님들께서는 대부분 교육에 열정적이고 큰 힘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상을 받았다는 것을 그 어떤 상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SNU in Beijing'을 비롯하여 제가 관여한 여러 교육 부분에서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 'SNU in World Program'은 2012년에 베이징을 시작으로 현재 8개 지역으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SNU in Beijing'이 있었기에 오늘날 'SNU in World Program'이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SNU in Beijing'을 기획하신 취지와, 이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을 위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SNU in World Program'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세계화를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에게 세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체득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SNU in Beijing' 역시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이미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상수가 된 중국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아직까지도 중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는 것 외에 깊은 내면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혹은 통일을 위해서도 중국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SNU in Beijing'을 비롯한 여러 'SNU in World Program'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해외 현지에서 생활해볼 수 있는 해외 체류의 경험을 준다는 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이 외국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운 여름 장기간의 프로그램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체력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관리를 해야 하며, 또 함께 참여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점을 잘 생각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 새로이 교과목을 만드시고 개편하실 때에 중점을 두신 것이 무엇인지요?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 역시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교과목을 만들고 교과과정을 개편할 때에는 언제나 그것이 변화하는 세계를 담아낼 수 있을지, 또 새로운 교과목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심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습니다. 새로운 시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항상 달라지지만, 그 방향은 학생들에게 변화 많은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미래 사회의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 앞으로 선생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을 위해 교육하고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필요하면 새로운 교과목도 개발하고 새로운 학생 참여 프로그램도 제안하고 직접 운영하면서 지낼 것 같습니다. 또 당장은 인문학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인데, 현재 10년째인 HK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HK후속 사업에 우리 연구원이 참여하도록 애써야 한다는 생각 정도를 할 뿐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1999년 서울대학교에 부임한 이후 교육과 행정적인 일 등에 밀려서 놓치고 있는 연구와 저술 부분에 앞으로 더 힘을 쏟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박사논문의 연장에서 100년 아니 500년 이상 갈 논어에 대한 큰 저술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랫동안 그것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 게으름과 논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한 점도 작용했습니다. 3년 전부터 이 작업을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이 들었고 이에 앞으로 이 연구와 저술에 시간을 쓰자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